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말씀 : 히브리서 11:23-40

요절 : 히브리서 11:33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또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고 고난 앞에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불굴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야말로 위대한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모세의 믿음과 선진들의 승리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모세의 믿음(23-28)

첫째 : 모세 부모의 믿음(23).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23) 모세가 태어날 당시 민족의 운명은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애굽 가운데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바로는 히브리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누구든지 강에 던져 죽이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죽이라고 강요하는 참으로 비윤리적이고도 비성서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바로의 권세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 울 만큼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히브리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사랑스러운 아들들을 강물에 내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의 명을 어기게 되면 그 아이뿐 아니라 부모까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 아르람과 요게벳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석 달 동안이나 아이 모세를 숨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①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20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즉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 모세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아이는 보통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다.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감으로 보였습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크게 쓰임 받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던, 시대를 보던, 상황을 보던, 어떤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나, 나라를 바라보나, 가족을 바라보나, 양들을 바라보나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데도 자신의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수가(河水歌)에 갖다 버립니다. 앞길이 구만 리 같은 청년들이 무책임하게 자신의 창창한 미래를 그냥 죄의 시궁창에, 술과 방탕의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날 시대처럼 운명적이어도, 모세가 태어난 시대처럼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어거스틴이 10여년을 탕자가 되어서 사생아를 낳고 방황해도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십 수 년을 포기치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니카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녀는 아들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비전을 보았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믿음대로 어거스틴은 죄의 바다에서 건져지게 되었고 중세의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들을 19명을 낳았습니다. 가정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남편도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잔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창자 영국사회를 변화시킬 주님의 종들이 될 소망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 바쁘고 힘든 중에도 매일매일 자녀들을 한 사람씩 데리고 성경을 읽어주고 카운셀링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12번째 아들 요한 웨슬레와 14번째 아들 찰스 웨슬레는 후에 타락한 영국사회를 변혁(變革)시킨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어두운 운명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빨간 핏덩어리 갓난아이에게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말 안 듣고 뻔질뻔질한 양에게서도 위대한 목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7부 가운데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UBF 초창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7부로 양들이 꾸역꾸역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이 학생들로 차고 넘치고, 제자로 성장한 형제자매들이, 선교사로 5대양 6대주로 나가는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들이 오라! 우리가 말씀이 풍성한 시온 중에 시온인 7부로 가자고 목자의 손을 잡고, 양들이 양의 손을 잡고 몰려오는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광주여대에서 광산권 6개 대학 개척을 위한 첫 예배를 드립니다. 허에스라 목자님이 믿음의 눈으로 호남대, 남부대, 보건대, 과기원, 동신대, 광주여대를 바라보고, 비전을 갖고 개척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② **모세의 부모는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로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바로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부모는 바로의 배후(背後)에 계시는 하나님,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로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두렵지 않고, 교수님의 꾸짖나, 선배들의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수1:9).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딤후1:7).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아니라 바로 할아버지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 모세의 결단하는 믿음(24-26)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된 모세는 이제 세계 최강대국 애굽 왕의 자리에 앉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날이 있기까지 그는 지난 40여 년 동안 애굽의 모든 지혜(학술)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되었습니다.(행 7:22) 그가 바로가 되어서 애굽의 최고 권좌에 앉는 날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금 은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이 씌워지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휘황찬란한 카페트가 깔리고 세계 최고의 준마(駿馬)를 타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꽃가루를 뿌리며 환호를 합니다. “Moses. Moses. 오! 태양신의 아들이시여.” 모세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백성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그가 궁 밖을 나가면 수십 대의 경호마차가 호위를 하고, 그의 집무실에는 항상 조공을 바치러 온 외국 사절들로 붐빕니다. 그는 날마다 나일강 Riverside Hotel에서 절세의 미녀들과 파티를 열고,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별장에서 세계 각국의 진기한 요리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막

강한 권세와 무한한 향락(享樂)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하늘을 찌를 듯한 피라미드에 안장되어, 영원히 썩지 않는 미이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24)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로의 공주(핫셉슈트)는 무남독녀(無男獨女)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이가 없어 고민했는데 생산의 신으로 믿고 있었던 나일 강에서 모세를 얻은 후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전쟁이 났을 때 모세는 왕을 대신해서 애굽의 총사령관으로 출전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났던 모세는 나중 태양신인 왕의 자리에 올라 모든 권세와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이제 바로가 될 수 있는 찰나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복이 굴러 들어올 텐데 그 축복을 제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망하고,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 자리를 모세는 스스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로 공주의 아들이란 것만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노예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백성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능욕을 받는 것입니다.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굴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감히 고개도 쳐들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채찍질을 하고, 욕을 하고, “진흙 이겨라” “벽돌 구어라” “물 떠와라” 별의별 명령을 다 내립니다. 모세는 이제 화려한 왕관과 비단 옷을 벗고, 옷웃을 벗어젖힌 채 맨발로 매일 매일 흙을 이기며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아니꼽고 서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 길을 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No라고 해야 할 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뛰어난 사람들과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거절할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나왔던 육상선수 ‘에릭 리틀’의 실화입니다. 그는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영국선수로 100m 경주에서 가장 유망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00m 경주를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주가 있던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예배를 포기하고 경기에 임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영국의 많은 사람들과 언론은 그를 편협하고 웅졸한 신앙인, 위선자라고 비난했지만 그는 끝까지 신앙양심을 버리지 않고 결국 경기에 불참함으로써 세상 금메달의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선 그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영국정부는 그가 뛰어난 선수라서 며칠 뒤에 그의 주 종목은 아니었지만 400m경주에 출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400m에 첫 출전한 그를 들러리로 여겼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금메달을 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다같이 25,2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5,26절에 보면 대조가 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과 낙, 수모와 보화가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과 낙’ 중에서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두 말할 필요 없이 낙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수모와 보화’ 중에서 무엇을 더 큰 재물로 여깁니까? 두 말할 필요 없이 세상 보화를 더 큰 재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대였습니다. 모세는 고난을 낙보다 더 좋아하였습니다. 수모 받는 것을 세상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인가를 바라볼 줄 아는 가치관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몸으로 느껴야만 믿을 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일 수밖에 없고, 일차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 쾌락이 더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세상 재물이 더 좋고, 세상 영광과 권력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쾌락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안락보다 세상의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행복입니다. 하늘의 보화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 역사에 길이 남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의 상급이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비록 거기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고 수모가 있을지라도 과감하게 이 길을 선택합니다. 모세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이요, 그 수모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분명한 소신이 있었습니다. 즉 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역사적인 고난이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수모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기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보화와 영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기꺼이 바로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로마서 8:18절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모세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두 명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콜린 타운센드라는 여배우였고, 또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를린 먼로였습니다. 그런데 타운센드는 할리우드가 얼마나 쾌락이 난무(亂舞)하는 곳인가? 무대 뒤가 얼마나 난잡(亂雜)한가? 그 인기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일찍 깨닫고 배우의 길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외국으로 떠나 버렸습니다. 반면에 먼로는 승승장구(乘勝長驅)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타운센드를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를린 먼로는 케네디 대통령 등 못 남성들과 음문(艷聞)을 뿌리다가 마약을 복용하고 자살로써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반면에 타운센드는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살하기 직전 먼로는 타운센드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난 네가 할리우드를 떠날 때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했었지. 그리고 내 경쟁 상대가 없어졌다고 마냥 좋아했었어. 그러나 이제 나는 네가 참으로 부럽구나.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모세는 **‘세상의 낙을 죄악의 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도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모세는 장성하면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의 눈으로 애굽 궁전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멀에서 올려다 볼 때는) 지극히 화려하고 고상해 보이지만, 그 내부는 온갖 음모와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궁이었습니다. 모세는 커갈수록 자신보다 어린 다른 왕자(투트모스 3세)와의 관계가 피할 수 없는 정적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무너뜨리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갖 추잡(醜雜)하고 더러운 음란과 거짓이 판치는 곳이 왕궁 생활임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 태양처럼 영원히 힘과 낙을 누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며, 지나가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낙이 좋아 보여도 결국 그것은 죄악의 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깐입니다. 모세는 시편 90: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마도 모세는 앞서간 수많은 바로들의 피라미드와 미이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

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세상의 온갖 쾌락들도 누려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 쾌락도 별 것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습니다.”(벧전 1:24,25). 모세는 결국 순간적인 것보다도 영원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모세처럼 더 값지고 더 소중하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작은 영광과 잠시의 쾌락을 과감하게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모세와 같은 현명한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셋째. 모세의 역사창조(27,28)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 위해 바로 공주의 아들임을 부인한 모세는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결단한 후 한 애굽 병사가 쇠약한 히브리 노예에게 무자비하게 채찍질하는 것을 보고 동족에 대한 연민과 정의감으로 한 방에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도화선(導火線)이 되어 백성들이 그의 회생정신을 본받아 목숨을 걸고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선 강한 권능으로 바로 군대를 꺾으시고, 자기를 바로와 같은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로공주 밑에서 금수저로 식사했던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고, 모세는 살인사건이 탄로나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드러난 사건만을 보면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과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 속에서 광야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를 도피하게 한 것은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로서의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위기의 순간에 도피하지 않고 인간적 의리와 혈기로 애굽에 버티고 있었다면 바로에 의해 처형당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의 운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역사도 큰 차질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였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도피한 후 40년 동안의 광야 연단 가운데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모세가 인간 기초 없는 노예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40년 동안 거칠고 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선 인내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의 인내의 믿음은 40년 광야생활 가운데 체험한 것입니다. 왕궁에서의 40년은 지도자로서의 인간적 기초를 쌓는 과정이라면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인간적 생각과 감정을 버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차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신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오직 간절함과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11:1)라면 그것은 우선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인생의 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근원적인 불신에 빠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후에 노예의 신분으로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내어 보낼 것을 당당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과거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계급도 직분도 없는 노예 백성 중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였습니다. 천하의 바로와 일개 노예 백성 중의 한 사람과의 싸움!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라운드의 대 격전 끝에 200만의 동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진군(進軍)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 과정 속에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습니다(28). 그

때까지만 해도 양의 피를 뿌려서 구원받는다든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심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바로는 장자제앙을 통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한 사람 다친 사람 없이 모두 건강하게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손에 무기하나 들지 않고 맨손으로 애굽에서 자기 동족들을 완벽하게 탈출해 내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는 출애굽이라는 대과업(大課業)을 완수하고 가나안 시대를 여는 새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모세는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아픔과 고생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4: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 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對面-얼굴을 마주보고 대함)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를 나눈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엘리야와 더불어 모세가 나타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모세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애굽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인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디엘 무디’는 모세의 일생을 40년씩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있을 때를 “I am somebody” 시대, 즉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청년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쓸쓸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I am nobody” 시대, 즉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 받는 노년의 모세로 “I am God’s body” 시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신학자 밴스 해브너(Vance Havner) 박사는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멸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으며,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제II부 : 승리하는 믿음(29-40)

첫째 : 믿음으로 이룬 승리의 역사(29-31)

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믿음(29).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29)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동해바다를 배를 타고 건넌다, 태평양 상공을 비행기를 타고 건넌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바다를 육지같이 밟아서 건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붙들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 보다 낫겠노라.”**(출14:11,12) 그러나 이때 모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14:13,14)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길을 내실 것을 믿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바다는 바다고 육지는 육지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바다는 육지가 될 수 없고 육지는 바다가 될 수 없다. 바다와 육지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분명한 경계선(境界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가능한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다’라는 한계선(限界線)이 그어

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런 경계선을 없애는 것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홍해 바다도 마른 땅과 똑같이 걸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만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는 곳도 가고, 할 수 없는 것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받을 내딛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해도 열리지 않고 홍해를 건널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손을 내어 밀고, 믿음으로 받을 내딛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열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29b)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뛰어난 장비와 훌륭한 인력과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을 시험하다가”, 즉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기술과 체력과 장비를 자랑하고자 하였습니다. 과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노예 백성들도 건너는데 선진국 최정예부대 애굽 군대가 못 건너겠는가라는 자만심(自慢心-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으로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뛰어나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건넌 것입니다. 저희들도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직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세계선교의 홍해가 열리고, 전공공부의 홍해가 열리고, 제자양성과 새벽기도의 홍해 바다를 능히 건널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홍해에 도전하고자 할 때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기술의 모든 인간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②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30).**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30)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여리고성에 도전하기까지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즉 홍해를 건넌 기적적인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백성들의 머릿속에서는 가물가물 먼 옛날 일로 잊혀져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아야만 하는 많은 인내를 요구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성 주위를 도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칠 일 동안 여리고성을 두루 돌았습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거짓말처럼 우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육 일 동안 돌 때까지는 아무런 징조나 싸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만약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몇 바퀴 돌다가 그만 두었을 것입니다. 4일 동안 돌다가 그만 둔 사람, 5일 동안 돌다가 그만 둔 사람, 6일하고 만나질 돌고 그만 둔 사람, 한 바퀴, 두 바퀴, 반 바퀴를 남기고 그만 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7일이라는 날짜를 정확하게 채워야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00원짜리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려면 300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동전을 넣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290원까지 넣었는데 커피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지막 10원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원을 넣는 순간 자판기는 마침내 작동을 시작하고 컵과 함께 뜨거운 커피가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임계점의 법칙’(臨界點-평형 상태의 물질의 두 상(相)이 서로 같게 되어 한 상을 이룰 때의 온도와 압력)이라고 합니다. 물이 100도를 넘어서는 순간 끓기 시작하듯이,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야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해보고는 진보가 보이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해 버립니다. 복음역사를 섬길 때도 몇 번 캠퍼스를 돌면서 피싱해 보고는 소원 있는 양을 만나지 못하면 캠퍼스 복음역사가 힘들다고 포기

해 버립니다. 기도도 몇 번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보지만 어떤 응답의 싸인이 보이지 않으면 도중에 쉬어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들고 또 도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는 25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기까지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도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선교사 사무엘 켄머(Samuel Zemmer)가 회교권에 대한 상한 심정을 가지고 사우디 선교사로 파송되었지만 그가 단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기까지는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조대 가운데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15년이 넘게 기도를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리고성처럼 견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한다면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치 않고 금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들고 또 들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역사가 베어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뱀들은 너무나 천천히 돌기 때문에, 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아주 보드랍게 곡식들을 뿜아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완벽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젖히실 것입니다.

③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31)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31)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유일한 이방인이자, 사라와 함께 여자로서 이름이 올라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더구나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는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바로 상천하지(上天下地)의 하나님,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의 바로도 굴복시키시고,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200만의 백성들을 마른땅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여러 번 진투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9절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은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기보다는 여리고 성을 굳게 잡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피해가기만을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자신이 기생으로서 죄인 됄을 알았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에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참된 신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라합은 여리고성 정복전쟁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방인이요, 후에는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는 큰 축복까지 덧입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만약에 믿음이 없이 보통 기생처럼 돈만 아는 사람이었다면 정탐꾼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았을 것입니다.(현재 간첩을 신고, 또는 잡으면 상금이 5억 원) 정탐꾼이 두 명이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더 많이 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인간조건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과거의 죄가 얼마나 추하던 간에,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이나 타이틀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요3:16)

둘째 : 믿음의 용사들(32-40)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저자는 이제까지 믿음의 선진들을 정리해 보다가 앞으로 더 써야 할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 편지지도 부족하고, 팔도 아프고,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뒷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총괄적(總括的)-개별적인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 묶음(묶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① 믿음으로 이룬 외적인 승리의 역사입니다(32-34). 32절부터 34절에 언급된 믿음의 용사들은 대부분 사사들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타작을 하고 있던 소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전했을 때에 단 300명의 소수병력으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들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락은 그 이름이 본래 ‘번갯불’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라면 그는 번개처럼 날렵하고 불처럼 용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쳐들어 왔을 때 여선지 드보라의 치마 자락을 붙들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번갯불이 아니라 호롱불만도 못한, 이름값도 못하는 졸장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도 나중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시스라와 싸워 큰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삼손은 본래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괴력(怪力)을 발휘하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미인계(美人計)에 넘어가 들릴라에게 빠지는 바람에 두 눈이 뽑히고, 재주나 부리는 광대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큰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쓰러뜨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자신도 함께 죽는 장렬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요, 서자출신이었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암몬 족속들을 파하고 민족을 위기로 부터 구한 그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은 홍안의 미소년이었지만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에게 도전하여 물뿜듯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린 용감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34,35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역사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떨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34-35).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떨하기도 하고, 적군의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 되어 이방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승리의 역사를 이룬 믿음의 용사들은 대부분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조건과 스펙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슬프고 패배적이고 운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어떻게 위대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위대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했고, 믿음은 소심한 졸장부를 용기 있는 대장부가 되게 했습니다. 믿음은 정욕에 병들어 연약해진 자를 강하게 했고, 불의한 자를 의롭게 했습니다. 믿음은 운명주의에 사로잡힌 자를 담대한 용사가 되게 했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인생을 위대한 승리의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놓았고, 세상을 이기게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막9:2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11:22) 저희들이 2016년을 맞아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도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금년에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② 믿음으로 역경을 이긴 내적 승리의 역사입니다(35-38).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툭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5-38절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내적 싸움에서 승리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툭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땅굴에 들어가 수년 동안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지상으로 나와 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신자들을 대상으로 무서운 핍박들이 감행될 때 한 신자는 자신을 핍박하는 군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때마다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증오의 심장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옥(獄-감옥)에서 처절한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일본경찰은 그를 거꾸로 매달아 채찍질하고 콧속에 고춧가루 물을 붓고 손톱, 발톱 사이에 대나무 바늘을 쑤서 넣는 등 참혹한 고문으로 위협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했습니다. 1939년 조선예수교장로회는 일제의 위협에 굴복해 신사참배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 가신 길이 십자가 길이에 내가 어찌 그 길을 피하겠나이까?’ 하며 참혹한 고문 속에서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은 과거 뿐 아니라 현재도 북한이나 중동지역 등 복음이 없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합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요, 세상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모두 패배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을 이기고,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구차한 마음을 이긴 진정한 승리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팔지 않았습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영혼을 팔지 않았습니. 그들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가치 없다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은 세상이 그들에게는 구차하게 살만한 가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38).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의 인생을 산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의 승리를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8:35-37)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 어떤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

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40)

39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인정과 칭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약속된 것은 약속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신약의 크리스찬들은 더 좋은 것, 즉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으며, 신약의 신자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과 신약의 우리들의 믿음이 합하여 온전함을 이루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까지 받은 우리들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 앞은 물론이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될 믿음의 조상들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소중한 믿음을 온전케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할지라도 일생동안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승리하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 배웠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 선진들의 삶과 그들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고난을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우리가 선진들의 믿음을 배우고 본받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례의 길을 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목표이자 상급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례 길을 완주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믿음의 영웅들 족보에 기록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